

서거석 교육감, '청룡기 고교야구 우승' 전주고 격려

“야구 명문 되살려줘 자랑스럽고 대견”

전북교육청, 우승팀 격려회 열어... 전주고, 1985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39년만에 쾌거

서거석 교육감이 1977년 창단 후 처음으로 청룡기 정상에 오른 전주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는 1985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무려 39년 만의 쾌거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우승팀 격려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전주고등학교 선수와 지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서 전주고는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 올해 3월 전국명문고야구연전과 4월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고교야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청룡기에서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야구 명문의 영광을 되살려 준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자녀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준 학부모들과, 야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우승팀 격려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주고등학교 야구팀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구부 육성을 위해 힘쓰는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들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교육감은 “전주고의 이번 우승이 도내 야구 꿈나무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실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 부문별 수상자로는 △최우수선수·타점·홈런상 이

한립(3년, 포수) △우수투수상 정우주(3년, 투수) △최대득점상 박한결(2년, 타자) △수훈상 이호민(3년, 투수) △감독상 주창훈(감독) △교도자상 최광현(야구부장) △공로상 라구현(교장) 등이다. /장은성 기자

다양한 혁신 정책 발굴

전북교육 미래 선도한다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전주 이종본에서 2024년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위 세미나, 신규위원 위촉, 의안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1분과는 교육특례 발굴, 2분과는 학령기 인구감소 대응, 3분과는 신규 현안 의제 발굴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1분과는 국제 IB 창의교육 양성사업 추진안을, 2분과는 학령기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3분과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한 평화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최은이 전주평화중 교장을 초청해 학교 현장의 갈등 전환과 평화감수성 교육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

고, 위기학생 관련 전북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분회의에서는 △국제 IB 창의교육 양성사업 추진안 △청소년 민주시민평화교육 거버넌스 필요안 △학교 통폐합 유희시설 활용 방안 △이동식 수업으로 여는 전북교육의 미래 △초등 고학년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시간 배정안 △통폐합 폐교를 전략적 접근안 등 6개 안건을 다뤘다.

박승문 위원장은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 전북교육발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분과별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전북의 교육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상산고, 사회통합 전형 선발 20%로 확대

2025학년도 신입학부터 적용... 지역인재 선발은 현행 유지

상산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학부터 사회통합 전형을 20%(68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24학년도 6%에서 14%가 증가된 것으로, 인원으로는 총 68명(남45, 여23)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상산고 사회통합 전형 중 50%(34명)는 기회균등 영역으로 우선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다. 나머지 50%는 사회다양성 영역으로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중학교 3학년 10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특히 상산고등학교의 사회통합 및 지역인재 전형은 그간 학교가 비율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각 20%씩 의무 선발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의 50% 범위에서 일반학생(학교생활우수자)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미달 인원에 대해 일반학생으로 대체 선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25학년도 신입학 전체 모집정원은 학교생활우수자 영역 190명(남127명, 여63명), 지역인재 영역 68명(남45명, 여23명), 글로벌태권도 영역 10명(남6명, 여4명), 사회통합 영역 68명(남45명, 여23명) 등이다. /장은성 기자

유학생 유치 첫걸음... JBNU인터내셔널 라운지 개소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JBNU 인터내셔널센터'로 재명명... 재학생·유학생 대상 편의시설 갖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JBNU 인터내셔널센터 내에 재학생 및 유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JBNU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뉴실크로드센터를 'JBNU 인터내셔널센터'로 재명명하고, 1층 로비와 사무실을 모두 국제화에 부합하는 920㎡규모의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조성했다.

특히 JBNU 인터내셔널 라운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대가 재학생부터 유학생, 그리고 지역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

이 공간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공간으로 설계, 전북대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면서 대학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층 구조로 2층은 학생들이 휴식과



전북대학교는 JBNU 인터내셔널센터 내에 재학생 및 유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JBNU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벽면에는 서가를 설치해 전북대 교수들의 우수 도서를 비롯해 최명희 작가의 '흔들'과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저서를 비치했다.

한편 이날 오전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관, 학생대표 및 외국인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

고, 새롭게 조성된 라운지를 함께 둘러봤다.

이날 개소식에서 양오봉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위기 시대에 유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나 말로 유학생 5천 명 유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 공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초등평가 설명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지역 협의회 임원진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초등평가 관련 설명, 학부모교육 주요 사업 소개 및 학부모만들기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협의회장은 “지역별 학부모 임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북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

라 학부모 임원진 간 소통과 협력 강화로 전북학부모협의회 및 단위 학교 학부모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학부모회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하이텍고, 완주 컨소시엄 채용 박람회 개최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한천수)는 17일 완주 컨소시엄과 함께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채용박람회는 지난 2월 완주군(군수 유희태), 완주군의회(부의장 김재천), 완주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우석대 등과 완주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대규모 행사다.

참여기업으로는 (주)오디텍, (주)넉에너지, (주)엘티, 유니레즈(주), (주)쓰리축코리아, (주)진우에스엠 등이다.

특히 전북하이텍고 2~3학년 재학생 108명은 이날 미원상사(주) 등 13개 컨소시엄 업체에서 채용면접 및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원상사(주) 1명, (주)오디텍 2명 등 모두 2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고대 박병춘 총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및 다용도품 사용과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에 박 총장은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 내에서 1회용품 대신 다용도품 사용하기 △매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수칙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 '교육감

사교육과 유착 행태로 물의'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공교육 수장 전북교육감이 오히려 사교육 기관과의 유착 행태로 반목을 사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5월 31일 도내 학원 원장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게다가 전북에듀에이를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미 전북의 사교육 업계는 일제고사 부활과 초등기말시험 실시 등 전북교육감의 학력강조 정책기조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여기에 표창장을 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공교육 수장이 할 일”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학행사를 열었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부조리한 커넥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17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중국 하주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우석대, 중국 하주대와 국제교류 '맞손'

공동 연구 등 학자들 간 협력 강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7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중국 하주대학교(총장 투하이보)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투하이보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대학은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연례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 대학 학자들 간의 연구 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광저우시 하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하주대학교는 1943년 개교한 국립대학교로 55개 학부에서 2만여 명이 수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 학생 역량강화 캠프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RIS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는 전북대 에너지산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함께 에너지 분야를 전공하는 지역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Energy up! 솔라 캠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17일, 17~19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산학융합원과 군산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프에는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전북 지역 대학과 강원대, 부산대 등 전국에서 4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전북대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태양광 모듈 제작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태양전지 및 소재 교육, 관련 팀별 실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혁신플랫폼 RIS대학교육혁신본부와 전북대 에너지산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추후 이 교육을 지역 내 초·중·고교 및 관련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까지 확대해 태양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